

분당에 'CHA 연구소' 개원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줄기세포 임상응용 등 연구총괄

포천중문의대 차병원(이사장 차경섭)은 지난 11일 포천중문의대 분당 캠퍼스에서 차경섭 이사장, 김병수 포천중문의대 총장, 최영길 강남차병원장, 이호왕 박사, 황우석 박사를 비롯한 세계적인 줄기세포 권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HA 연구소' (CHA Research Institute)를 개원하고 최영길 박사를 초대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취임식과 함께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CHA 연구소는 최근 차병원그룹이 인수한 대형병원인 미국 LA 할리우드장로병원내 줄기세포 연구센터와 함께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 병원그룹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중추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연구소군을 총괄하는 중앙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날 개원식에서 최영길 CHA 연구소 초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의학에서 밝혀진 새로운 발견들을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제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CHA 연구소'는 줄기세포 임상과 기초과학자의 대화와 협동의 장을 극대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의학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인류의 난치병을 극복하는 선봉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병수 포천중문의대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포천중문의대 차병원은 세계적인 생식의학기술의 토대 위에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 의료분야에 있어서 미래 국가 경쟁력의 중추가 될 줄기세포 연구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 CHA 연구소가 이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러는 주제로 '복제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주 생산'과 '줄기세포 생산에서 개발된 배양액이 난치병 치료 성공의 열쇠'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이 밖에도 차병원 그룹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교수들이 그 동안의 연구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진대학 과학영재교육원 266명 지원

경기도 200명, 서울에서 66명이 지원해

대진대학교 영재교육원(원장 채원석)이 지난 17일까지 1차서류심사 및 지필고사 원서접수 결과 모두 26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기초반은 137명이 지원했고 중등기초반은 129명이 지원했다. 이 중 포천지역 지원자는 초등기초반에 33명, 중등기초반에 33명이 각각 지원했다. 지필고사는 오는 28일 10시에 실시할 계획이나 응시인원이 적어 21일 대진대학교 영재교육원 관계자 회의를 거쳐 지필고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社 告

불우이웃돕기 365창구 개설

본지는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직접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이나 물품을 접수하는 방법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소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불우이웃돕기 365창구에 참여하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금은 계좌로 입금 후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은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이대열 포천소방서장 100,000원
- ◆포천모범운전자회 일동 212,120원
- ◆양주송 조선은돌침대 대표 200,000원
- ◆권석호 고모리 밤나무집 대표 50,000원
- ◆윤인수 삼우염직(주) 대표이사 200,000원
- ◆박노현 (주)웅이섬유 대표이사 200,000원
- ◆서두봉 목회이발관 대표 30,000원
- ◆신순분 (주)세영산업 대표이사 100,000원
- ◆박시훈 흑둔황우 대표 50,000원
- ◆문기봉 이조산업 대표 200,000원
- ◆박광배 법무사 사무소 대표 100,000원
- ◆한명승 용정웨딩홀 대표 100,000원
- ◆강승모 그린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 1,000,000원
- ◆이순환 (주)삼우석재 대표이사 1,000,000원
- ◆강수동 재단법인 동천장학회 이사장 1,000,000원

문의: 031-542-1507
계좌: 농협 585-12-113010(최효열)

*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365창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포천신문

관리지역내 숙박시설 신축 허용

3층이하와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로 제한 허용

포천시 관리지역(舊 준농림지외 준도시지역)에 숙박시설 신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제는 경기북부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숙박시설의 설치를 조제로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숙박시설의 신축을 제한함에 따라 관내 대형 행사시 숙박시설 부족 등으로 행사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관리지역내 숙박시설 신축을 허용하되 3층 이하, 바닥 면적 합계 2000평 이하 규모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거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숙박시설 신축부지의 경우 공사 중이거나 준공된 주택 용도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시는 특히 난 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끝나는 내년말부터는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숙박시설 신축을 허용하고 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전면 규제할 방침이다.



"내가 책을 만들었어요" 금주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제3회 나의책 을 손에 들고 환호하고 있다. 금주초등학교(교장 김영상)는 지난 11일 본교 다목적교실에서 제3회 나의 책 출판 기념회 및 학예발표회 를 개최했다. 제3회 나의 책 출판은 지난 3월초에 글쓰기 지도를 시작으로 글 교정 및 출판과정을 지도한 끝에 지난 22일 책 207권이 출판되었다.

포천시 2005년 '새해맞이 행사'

2005년 1월1일 7시부터
포천시는 2005년1월1일 오전7시부터 근대면 구읍리 청성산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7시에 체육공원에서 출발해 청성산 정상까지 30분 동안 오르고 7시30분에 청성산 정상에서 8시간 군악대가 새해 축하 연주를 한다.

이어서 7시45분에 무사평간 기원제를 올리고 8시에 소망기원 풍선날리기와 기념행사로 메시지 낭독과 새해인사를 한 후 경품추첨과 캐리터와 기념촬영등의 순으로 진행된 다. 시민 참가는 오전 7시에 청성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로를 따라 참가하면 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 국립수목원 서비스현장 제정

수목원, 관람객 위주 서비스 실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형광)이 관람객 위주의 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행정서비스 현장'을 제정, 운영한다. 이달부터 시행된 서비스 현장에는 ▶관람객을 맞이하는 자세 ▶수목원 관람제 개선 ▶시정 및 보살 조치 ▶생생한 여론 수

집을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수목원은 직원의 실수로 관람객이 2번 이상 수목원을 방문했을 경우 1회 방문에 5000원 상당의 교통비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하고, 예약 편의를 위해 우편이나 팩시밀리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식물

과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소형 안내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자연환경과 식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환경 교육교사가 1일 4회 수목원을 안내하고 해설하며, 예약 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방문 1일 전 사전예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수목원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세계제일 "인송정" 개성인삼농협에서 알립니다.

'개성인삼'은 을사 보호조약 이후 일본의 침략에 의해 전매라는 제도 하에서 농민들이 착취를 당해 가면서 독립군의 군자금도 마련해 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농산물입니다.

8·15 해방이후 세계 어느 곳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매의 악법을 이어 받아 인삼농민을 착취함과 동시에 국제 시장에서도 희소가치의 고가정책으로 외국 삼에 잠식당해 40%의 점유율에서 4%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급기야는 전매법이 폐지되고 민영화되어 '개성인삼농협'은 제일 먼저 앞장서 한국을 대표하는 '개성인삼'의 명성을 되찾고자 조합장이자 전임직원이 '6년근 농협홍삼'의 자부심으로 피땀흘려 오늘의 '인송정 개성인삼'을 기적적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유언비어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합이 오해로 얼룩져 조합원은 물론 '인송정'을 아끼시는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조합원과 고객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여러분의 농협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때까지의 모든 잘못을 관용과 용서로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롭게 도약하여 '100년 전통의 개성인삼'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4. 12.

개성인삼농협협동조합장 박창학 올림